



정종목 지음 | 화교재 | 246쪽 | 값 8,500원

산빛마음 이야기

원종목 등양에레베이터회장

강이 풀리려는 모양이다.
 요 근래, 눈이나 비가 내린 적이 없었는데 그래도 교외 언저리 실개천에는 제법 물이 붙어 있었다. 아마
 멀고 깊은 산 속에서 잔설이 녹아 내리는 것일 것이다. 모두 봄을
 좋아라 하지만, 철없는 아이 버짐 핀 것마냥 봄은 늘 메마르고 건
 조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다가선다. 그런 대지^{大地}가 염려되었는
 지, 어머니 찢무덤 같은 산은 적당한 수분을 머금고 있다가 저렇게
 버석거리는 대지 위로 돌려보내는 것을 보면, 사람이나 자연이
 나무는 구분이 있을 것이며 사람에게 마음이 있듯이 그것도 산의
 마음일 거라 생각해 본다.



그 실개천 독 머리에서 나는 꽤 오랫동안 물이 흐르는 모습을 지켜보며 우두커니 서 있었다. 살다 보니 조그만 틈마저 나를 위해 썼던 기억이 별로 없었다. 더욱이 회사나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에게 혼자만의 시간이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어쩌다 여분의 시간이라도 생겨서 의자에 등을 묻고 눈이라도 붙여 보지만 그나마 머릿속은 가시덤불이다.

이처럼 뻑뻑한 스케줄과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하루를 보내야 하는 나에게 그나마 휴식을 주고 새로운 생각을 주는 것은 책이었다. 하지만 경영자에게 독서시간이 따로 있을 수 없다. 도막난 시간들을 엮어 읽다 보면 어느 때는 하루 한 페이지도 읽지 못하는 때가 허다하다. 그래서 생겨난 버릇이 있다. 하릴없이 책을 쥐고 다닌다거나 머리맡에 놓고 잠이 들기도 하는데 그렇게라도 해야 한 달에 몇 권의 책을 읽게 된다. 그런데 며칠 전에 나는 책 한 권을 하루 만에 해치운 적이 있었다. 그렇다고 건성으로 읽은 것도 아니요, 분량이 작다고 할 수도 없는 책이었다.

정목스님의 산빛이야기, 《마음고요》

스님의 수도생활을 단편으로 엮은 책들이 워낙 많아서 선뜻 손이 가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때 마음이 그랬으리라. 신문을 보거나 방송으로 접하는 세상 소식들은 멀미가 날 만큼 어지러웠다. 게다가 경제까지 어려워지다 보니 또 다른 위기감이 스멀스멀 엄습해 오는 것이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나를 힘들게 했던 것은 어느 순간 세상이 낯설어졌다는 것이다. 어떻게든 따라가 보려고 하지만 디지털화되는 속도는 상상을 초월하였고, 세대간의 생각의 차이가 나를 힘들게 하기도 했고 그래서 어느 때는 혼자 영화 한 편 보기가 힘들 정도로 세상은 낯설어져 있었다. 그렇게 마음이 혼돈스러웠을 것이다. 그때 내 눈 속으로 들어오는 '고요'라는 단어 하나가 그 책을 집어들게 만들었고 그 후로 나는 마지막 쪽을 읽을 때까지 그 책을 놓지 않았다.

책이 스승 노릇을 할 때가 있다. 그것도 회초리를 든 아주 엄한 스승 노릇을 할 때가 있다. 사실 《마음고요》를 읽어가면서 스님의 산 속 이야기에 마음 한 자락이나마 여유

가 생긴다면 다행이라고 치기雜氣를 부렸다. 그렇게 읽어가던 중에 무연無緣이란 법명을 가진 스님이야기가 나온다. 오래 머물면 정이 붙는다 하여 한곳에 머물러 있지 않은 운수雲水였다고 한다. 그런 무연스님과 함께 했던 산행을 저자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산행이었다고 말한다. 어떤 산행이었을까? 사실 산 속 생활에 익숙해 있던 무연스님이었기에 그런 무연스님과 함께 산행하기에는 저자가 힘이 겨웠을 것이다. 게다가 길도 아닌 숲을 헤쳐가기도 하고 계곡을 가로지르기도 하고 낭떠러지 밑으로 밧줄을 타기도 했으니 오죽 힘이 부쳤겠는가. 결국 “이제 좀 길 같은 길로 가요스님”하며 채근을 하자 무연스님은 이렇게 대꾸를 하시더라.

“길이 따로있는 것이 아니야, 네가 밟는 곳이 다 길이지”.

겨자향이 그랬을까! 그 문장 하나로 가슴 한구석이 빠근해져 왔다. 굳이 무슨 토를 달겠는가. 결국 구름에 발을 딛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이다. 낯설고 어지럽고 위태로울지언정 내 두 발로 디뎌야 할 세상이 그러하다면, 그제 길이라 한다면 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스님의 말씀은 여기서 멈췄지만, 네 마음 속에 있는 두려움을 없애고 그 안에서 희망을 찾으라고 일러주는 것이었다. 책장을 덮고 나서 나는 한참 동안 그 책을 만지작거렸다. 살다 보면 값은 매길 수 없는 큰 행복을 작은 값으로 얻기도 한다. 이번이 그랬으리라.

수많은 미디어 매체들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 압박지르고 고향을 친다. ‘이렇게 삽시다. 저렇게 삽시다.···’ 하지만 그제 무슨 소용인가. 오히려 그로 인해 우리들이 얼마나 초조해지고 조바심만 앞서게 됐는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생겨난 분열로 또 다른 소외와 상처는 없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서툰 집단의 맹목적성이 시대를 흔들기도 하고 이끌기도 하지만, 결국 이 세상을 밝히는 것은 한 개인의 아름다워지려는 마음이며, 세상을 망치는 것도 자신을 다스리지 못한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는 잃고 또 잃고 또 잃어가며 깨닫는 것이다. 

